

희토류자원의 동향

최판규*

(주)MTI, 경기도 청북면 어연리 745-1, 451-833

지난해 9월7일 일본의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던 중, 일본 순시선이 영해침범 혐의로 중국어선에 정선을 명령하자 순시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시선은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중국어선을 오키나와로 나포했고, 이후 이 사건은 일본과 중국의 영토문제, 외교 및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국내법을 적용, 사법 처리하는 선례를 남기면서 자국의 ‘실효 지배’라는 사실을 국제무대에 알리고자 했던 일본의 속내와 이 지역을 ‘국제분쟁지역화’ 하고자 한 중국의 속내가 엮혀있었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양국 정상들의 회담이 무산되고 중국과 홍콩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나는 등 대립이 수개월간 지속되다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중단이라는 초강경 경제보복을 하자마자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중국어선 선장의 석방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는 물론 많은 일반 사람들까지도 “희토류” 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며, 어디에 쓰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정부의 희토류관련 정책에 따라 희토류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희토류 자원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고찰했다.

10월말 Nd 가격 파동 추이도

